

다시 관객

문화예술기관 운영 재개...어떤 작품으로 관객 만날까



19일부터 예약 관람할 수 있는 광주시립미술관 '놀이가 미술이 될 때 전'

코로나 19로 문을 닫았던 공연장, 미술관 등 광주지역 문화예술기관들이 다시 시민들을 만난다. 정부의 생활방역(생활속 거리두기) 전환에 맞춰 미술관은 사전예약제 등을 통해 관람객을 맞고 일부 공연장도 객석 제한제를 조건으로 작품을 무대에 올린다. 또 코로나 19 여파로 줄줄이 연기된 공연은 일정 조율 과정을 거쳐 관람객들을 맞을 예정이다.

6일부터 제한적으로 문을 여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ACC)은 사전예약과 시간대별 입장 제한 등을 전제로 관람 서비스를 운영을 재개한다. ACC는 공간과 프로그램을 부분적으로 운영하고 방문객 인원도 제한하며 관람객을 대상으로 발열검사를 한 뒤 손세정제 소독과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로 시설을 이용토록 할 방침이다.

실내 시설의 경우 개인 관람만 허용된다. 개인 간 거리 유지(1~2m)가 가능한 범위에서 문화장조원 전시실과 어린이문화원 유아놀이터 등은 시간대별로 적정 인원을 제한하며 예술극장과 문화정보원 열람실은 거리두기 객석제를 실시한다.

전당에서는 5·18 40주년을 기념하는 다양한 행사가 열린다.

ACC 복합1관에서는 인권과 평화를 주제로 한 미디어아트 전시 '광장(Beyond the movement)'전이 8일부터 펼쳐지며, 5·18민주화운동 40주기 기획전 '시내 마테코'는 15일부터 라이브리리파크 극장 3에서 열린다. 16일부터는 민주평화교류원(옛 전남도청)도 개방할 예정이다.

참여형 작품인 '나는 광주에 없었다' (12일~18일), 지역음악인들이 참여한 음악회 '나라사랑' (24일), '시간을 질하는 사람' (27일~31일)도 관객을 만난다. 그밖에 ACC 브런치콘서트 캠페리리 매직과 미스터리의 만남 '스냅 SNAP' (27일), 슈퍼클래식 '자비에르 드 매스트르&강혜정' (28일) 등도 진행한다. 이용객은 누리집을 통해 관람시간과 시간대별 관람 가능 인원, 예약방법 등을 사전에 확인하고 예약 후 관람해야 한다. 온라인 사전예약이 어려운 경우 콜센터로 통해 예약을 할 수 있다.

광주시립미술관(관장 전승보)은 19일부터 관람 예약제를 통해 미술관을 제한적으로 개관한다. 현재 본관 로비인테리어 및 복라운지 조성 공사를 진행중인 미술관은 공사가 완료된 후 편안한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재개관일을 늦춰 잡았다.

ACC, 8일부터 5·18 '광장' 전

'나는 광주에 없었다' 등 공연도

시립미술관, 19일부터 예약관람

'놀이가 미술이 될 때' '불혹전' 등

문예회관, 5월까지 온라인 공연

유·스퀘어, '영뮤지션콘서트'

극단들, 6월 '광주연극제' 준비

미술관은 온라인 관람예약시스템을 구축, 하루 3차례(오전 10시~12시·오후 1시~3시·오후 3시30분~5시30분) 나눠 개방하며 본관은 일일 입장 정원 180명, 하정웅 미술관과 사진전시관은 일일 50명으로 제한한다. 어린이갤러리와 문화센터는 추후 초등학교 등고 일정에 따라 개관시기를 정할 예정이다.

미술관은 현재 '놀이가 미술이 될 때' (7월26일까지), '북경질주전' (8월16일까지), '신소장품 2019전' (7월26일까지) 등을 진행중이며 하정웅 미술관은 '불혹전' (8월19일까지)을, 사진전시관은 '박일구의 바다로 가는 길' (7월19일까지)을 열고 있다.

예약은 미술관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으며 유선접수도 진행한다. 관람을 위해서는 신분증, 마스크를 지참해야 하며 열화상 카메라로 1차 체온 측정 후 경고음 발생자에 한해 비접촉체온을 측정한다.

구청 산하 기관인 미술관도 전시를 재개했다. 남구정이 운영하는 이강하미술관은 6일부터 오일 특별전 '푸른 상처, 별의 공존'전을 시작하며 동구정의 무동갤러리역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제작한 연극 '나는 광주에 없었다'

시 오일 기념전 '직시'를 통해 관람객들을 만날 예정이다.

광주문화예술회관(관장 성현출)은 5월까지는 온라인 공연을 진행하며 6월부터 순차적으로 작품을 무대에 올릴 계획이다. 5월 중 예정된 '광주여 영원히', '국악 상설공연' 등은 온라인으로 선보인다. 6월 관객들과 함께하는 공연은 광주시립발레단의 살롱콘서트로 객석의 일부만 오픈할 예정이다.

유·스퀘어 문화관은 지난 1일 동산아트

홀에서 시작한 연극 '자메이카 헬스클럽'으로 재개관을 알렸다. 오는 9일과 10일 금호아트홀에서는 '영뮤지션콘서트'를 통해 관객과 만날 예정이다.

지역 연극단체도 다시 연습을 재개했다. 극단 좋은친구들, 진달래피네, 사람이 등은 오는 6월2일부터 12일까지 유·스퀘어 문화관 동산아트홀에서 열리는 광주연극제에 올릴 작품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미은 기자 mekim@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박진현의 문화카페

지나해 말 신문의 외신면을 읽다가 안타까운 기사를 접했다. 미국 워싱턴 D.C의 명소인 '뉴지엄(Newseum)'이 운영난을 이기지 못하고 역사속으로 사라진다는 내용이었다. 눈치 빠른 이라면 짐작하듯, 뉴지엄은 뉴스와 뮤지엄의 합성어다. 비영리 언론단체인 '프리덤 포럼'과 USA 투데이 발행인 알 뉴하스(Al Neuharth)가 시민들에게 미 수정헌법 제1조인 언론 자유의 가치를 알리기 위해 건립한 언론박물관이다.

지난 1997년 워싱턴 D.C 인근의 버지니아 로슬린에서 개관한 뉴지엄은 2002년 임시 휴관할 때까지 짧지만 강한 임팩트를 보여줬다. 프리저상을 수

장에서 얻는 감동과는 다른 깊은 여운이 남는다.

조만간 광주에도 뉴지엄 부럽지 않은 근사한 '공간'이 탄생한다. '호남언론'의 산실이자 5·18 민주화운동 당시 진압군 '헬기 사격'의 역사적 현장인 전일빌딩이 오는 11일 '전일빌딩 245'라는 문패를 달고 시민들의 품으로 돌아온다. 245라는 명칭은 도로명 주소인 '광주시 동구 금남로길 245'와 건물 외벽과 건물10층 내부에 남겨진 총탄 자국수 245를 상징한다.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절묘한 조합이다.

무엇보다 전일빌딩 245의 역사성은 한때 이곳에 터를 잡았던 언론매체들의 면면에서 잘 드러난다. 1968년 광주

굿모닝! '전일빌딩 245'

상한 기사와 사진, 500년의 신문뉴스를 한자리에 모은 갤러리 등 차별화된 컨셉은 개관과 동시에 화제를 불러 일으켰다. 방문객들의 발길이 늘어나자 '수용'에 한계를 느낀 뉴지엄은 지난 2008년 백악관 근처에 7층 건물을 지어 재개관했다.

문득, 10여년 전 미국 여행중에 들른 뉴지엄에서의 '추억'이 새록 새록 되살아난다. 워싱턴 D.C의 유명 미술관들을 제외하고 뉴지엄을 찾은 건, 순전히 언론인으로서의 호기심 때문이었다. 박

물론 입구에 들어서면 건물 내부의 대리석 벽에 언론과 종교 등 인간의 5가지 기본적 자유를 보장하는 미국 수정헌법 제1조 전문이 새겨져 있다. 또한 박물관 3층에는 1837년부터 진실보도를 위해 희생된 언론인 1900여 명의 이름이 그들의 국적과 함께 적혀 있다. 역사의 진실을 알리기 위해 목숨을 걸고 연극제를 올릴 작품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미은 기자 mekim@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최초의 7층 건물로 지어진 전일빌딩에는 옛 전남일보(광주일보 전신), 1971년 개국한 전일방송, 1980년 옛 전남매일을 흡수합병해 이름을 바꾼 광주일보가 다른 곳으로 사육을 이전하기 전인 2004년까지 자리를 지켰기 때문이다. 말 그대로 호남 언론의 변천사를 품고 있는 '살아 있는 박물관'이다.

실제로 전일빌딩 245의 '전일 아카이브' 공간에는 1928~2004년까지 76년간 옛 전남일보와 전일방송, 광주일보가 정론(正論)을 썼던 현장을 되새겨볼 수 있는 일한 콘텐트들로 가득하다. 더불어 전국 최초의 사립 공공도서관이었던 남봉도서관, 광주시민의 사랑방이었던 전일다방, 남봉갤러리 등 추억속의 문화1번지들도 20여 년만에 부활한다. 모쪼록, 복합문화센터로 돌아온 전일빌딩 245가 오래도록 금남로를 지켜줬으면 좋겠다. 그 옛날, 전일빌딩이 그랬던 것처럼.

<제작국장·문화선임기자>



피아니스트 조성진·이루마, 7·9일 '온라인 공연'...WHO 기금 캠페인

피아니스트 조성진(사진)과 이루마가 세계보건기구(WHO) 기부 캠페인에 참가한다고 유니버설뮤직이 밝혔다.

조성진은 7일 밤 10시 공식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30분가량 피아노 연주와 함께 팬들의 질문에 답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공연은 사전에 무관객으로 할

영한 영상을 페이스북 라이브 기능을 활용해 송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조성진은 오는 8일 발매를 앞둔 새 앨범 '방랑자(The Wanderer)'에 수록된 슈베르트 '방랑자 환상곡'과 리스트 '피아노 소나타'를 연주하고 질문에 답변하는 시간도 갖는다.

이루마는 9일 정오 공식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약 30분간 피아노 연주와 토크 세션을 진행한다. 오는 22일 발매하는 새 앨범의 수록곡을 연주할 예정이다. 온라인 공연 중에는 '기부 버튼'이 활성화돼 누구나 코로나 19 극복을 위한 캠페인에 동참할 수 있다. /연합뉴스

SINCE 1982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를 보세요”

국제보청기

-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02) 765-9940

순천점 중앙시장 앞 061) 752-9940

소상공인 공동브랜드 k.tag 전국100개 인증업체선정

광주전남 기능장 호 국무총리상 표창
보건복지부 장관상 표창
광주광역시 시장상 표창 광주남구 청장상 표창

大山 프리모 남녀 가발

특수가발 별매(원터치) 테잎 X 핀 X
기능장이 직접 37년 시술 1만명 이상 내공
H.M사 동급제품 130만원 59만원~

062 673 5858 (모발모발) 매주 화요일 휴무
일요일 정상 영업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인가든아파트 상가2층(대광여고 옆)